

## 2장. 연설술의 정의, 세 가지 설득수단, 증명방식

[25] 연설술은 각각의 경우에서 가능한 설득수단을 보는 능력이라고 해 두자. 이것은 다른 어떤 기술의 과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술들 각각은 자신에 고유한 대상에 관하여 가르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학은 건강한 것들과 병든 것들에 관하여, 기하학은 크기들에 [30] 딸린 성질들에 관하여, 그리고 산술은 수들에 관하여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여타 기술들과 학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연설술은 어떤 것[대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관하여 설득수단을 볼 수 있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연설술이 어떤 고유한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술의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35] 설득수단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기술외적이고, 어떤 것들은 기술내적이다. 기술외적인 것들은 우리들[연설술 연구자들]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이미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증인, 고문, 계약서 등을 말하고, 기술내적인 것들은 방법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앞의 것들은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만, 뒤의 것들은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해야 한다.

1356a | 연설을 통해 제공되는 설득수단의 종류는 셋이다. 첫째, 그것은 연설자의 성격에 있고, 둘째, 그것은 청중을 어떤 [심리적] 상태로 놓는 데에 있고, 셋째, 그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또는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연설[또는 논증] 자체에 있다.

그런데, [5] 성격을 통한 설득은, 연설자가 자신을 신뢰할 만한 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연설을 행할 때,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덕망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쉽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 모든 일들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엄밀성이 없고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들에서는 전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이 신뢰도 연설을 통해 생겨야 하지, 연설자가 [10]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통해 생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연설의] 기술을 설명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처럼 연설술에서 연설자의 덕망이 정말 설득력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설에서 드러나는] 성격이 가장 강력한 설득수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청중을 통한 설득은, 그들이 연설에 의해 어떤 감정의 상태로 이끌릴 때, [15]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괴롭거나 기쁠 때, 또는 사랑하거나 미워 할 때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만 현재의 연설술 작가들이 몰두하려 든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들에 대해 말할 때,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연설[또는 논증]을 통한 설득은, 우리가 각 경우에 관한 설득수단들로부터 [20] 진실이나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줄 때, 일어난다.

설득은 이러한 [세 가지] 수단들을 통해 일어나므로, 분명히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할 줄 알고, 성격들, 덕들, 그리고 셋째로 감정들에 대해 — 감정들 각각이 무엇이고 어떤 성질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로부터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의 [25]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연설술은 변증술과 성격에 관한 연구[윤리학](이를 정치술이라 불러야 옳을 것이다)의 결과지와 같은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설술은, 그리고 — 때로는 교육 부족으로 때로는 허풍이나 또 다른 인간적인 약점들 때문에 — 연설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30] 사람들은 정치술의 외양을 걸치기도 한다. 우리가 또한 처음에 말했듯이, 연설술은 변증술의 어떤 부분이고 그것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 둘은 어느 것도 특정 대상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앎이 아니라, 논증을 제공하는 일정한 능력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 기술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35] 관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한 듯싶다.

변증술에서 한편으로는 귀납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론과 추론처럼 보이는 것이 있듯이,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처럼 보임을 통해서 설득이 | 일어날 때, 1356b 연설술에서도 그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본보기는 귀납이고, 생략삼단논법은 추론이고, 생략삼단논법처럼 보이는 것은 추론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설술적 추론을 [5] 생략삼단논법이라고 부르고, 연설술적 본보기를 귀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사람[연설자]들은 본보기라든가 생략삼단논법을 — 이것들 외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 말함으로써 증명을 통한 설득을 행한다. 그래서 만일 항상 추론을 하거나 귀납을 행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면(이 점은 우리에게 [10] 《분석론》을 미루어보건대 분명하다), [연설술의] 이것들 각각은 [변증술의] 다른 것들 각각과 [형식적으로 그 기본 구조가]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본보기와 생략삼단논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변증론》을 미루어 보건대 분명하다(왜냐하면 그곳에서 추론과 귀납에 대해 앞서 얘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다수의 비슷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15] 어떤 것이 이렇다고 보여주는 것은 변증술

에서는 귀납이고 연설술에서는 본보기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것[전제]들이 있다고[참이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결론]이 그것들을 통해, 그것들과 따로, 그것들이 있음[참임]으로써, 보편적으로[필연적으로] 또는 대체적으로[개연적으로] 따를 때, [뒤의 과정은] 변증술에서는 추론이라 불리고 연설술에서는 생략삼단논법이라 불린다. 그리고 연설술이 두 가지를 활용한다는 것도 [20] 분명하다(정말로, 《방법론》에서 말한 내용이 이런 경우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어떤 연설들은 본보기에 의존하고, 어떤 연설들은 생략삼단논법에 의존하고, 연설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본보기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략삼단논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본보기를 통한 연설[논증]이 설득력이 덜한 것은 아니지만, 생략삼단논법에 의한 연설이 [25] 더 호응을 얻는다. 그것들의 원인 및 그것들 각각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나중에 말할 것이다. 지금은 이것들 자체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보도록 하자.

설득력이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직접 그 자체에 의해 설득력이 있고 믿을 만하지만, 어떤 것은 그런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것들에 의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기 [30]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어떤 기술도 개별적인 것을 고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학은 무엇이 소크라테스나 칼리아스에게 건강한 것인지를 고찰하지 않고, 무엇이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것인지를 고찰한다(왜냐하면 뒤의 것은 기술의 영역에 속하지만, 개별적인 것은 무한하고 <sup>없</sup>[학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설술도 개별적인 것,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나 히피아스가 받아들일 만한 통념을 연구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통념을 연구한다. [35] 그리고 이 점은 변증술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 기술도 아무런 것들로부터나 추론하지 않고(미친 사람들에게도 어떤 것들이 참인 것처럼 보인다), 논증을 필요로 하는 것들로부터 추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설술은 이미

1357a 익히 | 숙고의 대상인 것들로부터 추론한다.

연설술의 과업은 우리가 숙고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다른] 기술들이 없는 것들에 관련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조망할 능력도 길게 추리할 능력도 없는 청중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5] 보이는 것들에 대해 숙고한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달리 있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한, 숙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추론과 귀납은, 때로는 이전에 추론된 것[전제]들로부터, 때로는 추론되어 있지 않고 통념들이 아니어서 [10] 추론이 필요한 것들로부터 가능하다. 이 가운데 앞의 것은 [논증의] 길이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 것일 수밖에 없으며([민화나 법정의] 판단자는 단순한 사람인 것으로 전제된다), 뒤의 것은 동의된 것들로부터 나온 것도 통념들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기에 설득력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생략삼단논법과 본보기는 — 본보기는 귀납으로써, 생략삼단논법은 추론[연역]으로써 — [15] 대부분 달리 있을 수 있는 것들에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소수의 전제들로부터, 그리고 종종 전형적인 추론의 전제들보다 적은 전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전제들] 중 하나가 알려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청중 자신이 그것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리에우스가 월계관이 상품으로 수여되는 경기의 승리자였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 [20] 그가 올림피아 경기의 승리자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올림피아 경기에서 상품으로 월계관이 수여된다는 점은 덧붙일 필요가 없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설술적 추론들을 구성하는 전제들 중 소수만이 필연적[으로 참]이다(왜냐하면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지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정말 달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25] 것들에 대해 숙고하고 검토하며, 모든 행위들은 그러한 부류의 것들이고, 그것들은 어떤 것도 말하자면 필연적이지 않다). 그리고 대체적으로[개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과 가능한 것들은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로부터 추론되어야 하지만, 필연적인 것들은 필연적인 것들로부터 추론되어야 [30] 한다(이는 《분석론》을 미루어 보건대 우리에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확실히, 생략삼단논법을 구성하는 것[전제]들은 더러는 필연적인 것들이지만, 대다수는 대체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생략삼단논법은 개연적인 것들과 신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들 각각은 앞의 것들 각각과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연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5] 어떤 사람들[연설술 작가들]이 규정하듯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달리 있을 수 있는 것들에 관련하여, 개연적인 것이 그것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 갖는 관계는 |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에 1357b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신호들 중 어떤 것들은 개별적인 것들 중 어떤 것이 보편적인 것에 관계하듯 관계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보편적인 것들 중 어떤 것이 개별적인 것에 관계하듯 관계한다. 이것들 중 필연적인 신호는 증거이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그 [5]

차이에 따른 이름이 없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의 증명적인 또는 학문적인] 추론이 생겨나는 신호들을 나는 필연적인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들 중 그러한[필연적인] 것은 증거이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입증되고 끝맺음되기라도 한 듯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tekmar[증거]와 peras[끝]가 옛말에 따른다면 [10]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신호들 중 어떤 것은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처럼 관계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지혜롭고 정의로웠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의롭다’는 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신호이면서도, 말한 바가 참일지라도 반박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밀하게 추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15]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열이 있다’는 것은 ‘그가 아프다’는 신호라고 말하거나, ‘어떤 여자로부터 젖이 나온다’는 것은 ‘그녀가 애를 낳았다’는 신호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인 신호이다. 신호들 중 이것만이 유일하게 증거이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만일 참이라면, 유일하게 반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처럼 관계하는 것은, 예를 들어 ‘호흡이 가쁘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신호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참이라 하더라도, [20] 반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열이 있지 않으면서도 호흡이 가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연적인 것이 무엇인지, 신호와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그것들에 관해서도 보다 분명하게는, 그리고 왜 어떤 것들은 엄밀한 추론이 못되고 어떤 것들은 엄밀한 추론이 되는지는 [25] 《분석론》에 규정해 놓았다.

본보기가 귀납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들에 대한 귀납인지는 이미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 전체와 전체로서 관계하지 않고, 부분과 부분, 비슷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관계한다. 둘이 같은 [보편적인] 부류에 속하고 하나가 [30] 다른 하나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일 때 본보기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디오니시오스는 호위대를 요구하고 있기에 참주가 되려 한다. 왜냐하면 페이시스트라토스도 이전에 그렇게 되려 하면서 호위대를 요구하여 이를 얻은 후 참주가 되었고, 테아게네스도 메가라에서 그랬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중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디오니시오스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 그들이 그가 그 때문에 그런 요구를 [35]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참주가 되려 하는 사람은 호위대를 요구한다.

1358a | 지금까지, 증명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설득수단들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

지를 말했다. 그러나 생략삼단논법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특히 간과하고 있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또한 변증술적 방법에 관련해서 추론들 사이에 있는 차이이기도 하다. 생략삼단논법들 중 어떤 것들은 [5] 연설술적 방법에 따라 구성되는데, 이는 추론들 중 어떤 것들이 변증술적 방법에 따라 구성되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 기존의 또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 다른 기술[학문]들과 능력들에 따라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은[또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간과한다. 그리고 [특정 분야(이들테면, 윤리학이나 정치학에) 고유한 주제를 깊이 다룰수록, 그것들[연설술과 변증술]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되면 [10] 그 말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변증술적 추론들과 연설술적 추론들이 우리가 ‘토포스’라고 부르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것들은 정의로운 것들, 자연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더와 덜’의 토포스가 있다. 이것으로부터 [15] 추론하거나 생략삼단논법을 말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들, 자연적인 것들, 다른 임의의 것,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대상들이 종(種)에서 다르긴 해도 말이다. 그리고 [특정 지식 영역에] 고유한 토포스들도 있다. 이것들은 [지식의] 각각의 종이나 유에 관련된 전제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것들에 관련해서, 윤리적인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생략삼단논법도 추론도 나오지 않는 전제들이 있다. [20] 그리고 윤리적인 것들에 관련해서, 자연적인 것들에 적용될 수 없는 또 다른 전제들이 있다. 모든 경우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 [공통된] 토포스들은 어떤 유(類)에 대해서도 앎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탕이 되는 특정 대상에 관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뒤의 [고유한] 토포스들을 누군가가 더 잘 [전제들로서] 선택할수록, 변증술과 연설술과는 다른 앎을 자신도 모르게 산출하게 될 것이다. [25] 왜냐하면 만일 그가 [개별적인 또는 고유한] 원리들을 마주친다면, 더는 변증술도 연설술도 있지 않고, 그가 가진 그 원리들이 속한 학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략삼단논법은 개별적이고도 고유한 이런 종적인 토포스들로 구성되고, 공통된 토포스들로부터는 소수만이 구성된다. 《변증론 Topik a》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30] 전제들을 얻어내는 곳인 생략삼단논법들의 종[고유한 토포스]들과 [공통된] 토포스들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들’이란 각각의 유에 고유한 전제들을 말하고, ‘토포스들’이란 모든 것들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것들을 말한다. 먼저 이 종들에 대해서 말해 보자.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연설술의 종류를 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규정한 다음에, 그것들의 요소들과 전제들을 [35] 따로따로 들어 보도록 하자.

### 3장. 연설의 세 가지 종류

연설술의 종(種)은 그 수가 셋이다. 왜냐하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의 부류도 그만큼이기 때문이다. 연설은 세 가지의 것 — 말하는 사람[연설자], 그가 말하는  
1358b 것[연설 주제], 그가 | 상대하는 사람[청중] —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마지막의 것, 다시 말해 청중을 향해 있다. 그런데 청중은 관찰자이거나 판단자일  
수밖에 없고, 판단자는 다시 과거의 일들이나 미래의 일들에 대한 판단자이다.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판단하는 사람은 [예컨대] 민회의원이고, [5] 과거의 일들에  
관하여 판단하는 사람은 재판관이다. 그리고 [연설자 또는 칭찬이나 비난 받는 사람의]  
능력에 관하여 판단하는 사람은 관찰자이다. 이렇게 해서, 연설의 유(類)는 셋,  
즉 조언적인 것[조언연설], 재판상의 것[재판연설], 전시적인 것[전시연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언 중 어떤 것은 권고이고, 어떤 것은 만류이다. 사적으로 조언하는 사람이든  
[10] 공적으로 민회연설을 하는 사람이든 그 둘 중 하나를 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는 한편으로 고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변호가 있다. 소송당사자들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시적인 것 중 어떤 것은 칭찬이고, 어떤  
것은 비난이다.

이것들 각각에 시간이 있다. 조언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시간이 있고(왜냐하면  
그는 권고든 만류든 있을 [15] 일들에 대해 조언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시간이 있고(왜냐하면 행해진 것들에 관련하여 항상 한쪽은  
고소하고, 다른 한쪽은 변호하기 때문이다), 전시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간이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나(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것들을 칭찬하거나 비난  
하기 때문이다), 그는 때때로 과거의 것들을 [청중에게] 기억시키고 미래의 것들을  
[20] 미리 그려보면서 그것들을 추가로 사용한다.

이것들 각각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르다. 그리고 세 가지 종이 있으므로 그  
목적도 셋이다. 그것은 조언하는 사람에게는 이로움과 해로움이다(어떤 것을 권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 좋은[이로운] 거라며 조언하고, 어떤 것을 만류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 나쁜[해로운] 거라며 만류한다). 그는 다른 요인들은 —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아름다운지 추한지는 — [25] 그 목적에 부차적인 것으로 놓는다. 그리고 법정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에게는 옳음과 그름이 목적이다. 이들도 다른 요인들은 그것들에 부차적인 것으로 놓는다.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목적이다. 이들도 다른 요인들은 그것들에 부차적으로 연결된다.

연설의 각 종(種)이 갖는 목적이 그렇다는 점을 [30] 보여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때로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툼을 벌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다거나 해를 끼쳤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코 부정을 저질렀다[잘못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재판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언하는 사람들은 다른 점들은 다 물리더라도, 유익하지 않은 것을 조언한다거나 [35] 유익한 것들을 만류하고 있다는 점에는 결코 동의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나라 사람들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종종 개의치 않는다. 마찬가지로,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로운 일을 했는지 | 해로운 일을 했는지는 1359a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등한시 한 채 아름다운 것을 행했다는 점을 칭찬의 계기로 삼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살아남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료 파트로클로스를 도왔다는 이유로 아킬레우스를 칭송한다. [5] 그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더 이로웠지만, 그러한 죽음이 더 아름다운[명예로운] 것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들부터 분명히, 무엇보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전제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연설술적 전제들은 증거들과 개연적인 것들과 표시들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추론은 전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생략삼단논법은 [10] 앞서 말한 전제들로 구성된 추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이 행해질 수도 행해졌을[또는 행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게 되지 않을 것들은 행해졌을 수도 행해지게 될 수도 없으므로, 조언하는 사람과 법정에서 연설하는 사람과 제시하는 사람은 [15] 가능과 불가능, 그리고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전제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연설자들은, 칭찬하거나 비난하든, 권고하거나 만류하든, 고소하거나 변호하든, 앞서 말한 점들을 보여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이로운] 것이나 나쁜[해로운] 것이, [20] 또는 아름다운 것이나 추한 것이, 또는 옳은



것이나 그른 것이 — 그 자체로 말할 때든 아니면 서로 견주어 볼 때든 — 크거나 작으므로, 분명히 큼과 작음, 더 큼과 더 작음에 관한 전제들을 — 일반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것에 관련하여 —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이 더 크게 더 작게[더 또는 덜 좋은 것인지 또는 옳은 행위인지 그른 행위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들에 관련하여 전제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했다. 다음으로, 이것들 각각에 대해, 조언은 어떤 것들에 관련하고, 전시적 연설들은 어떤 것들에 관계하고, 셋째, 재판은 어떤 것들에 관계하는지 개별적으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